

지역 소식통

30~31일 김제 전통시장
정계장터서 '단오제'

성산마을관리사회협 협동조합(이하 성산마을조합)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김제 전통시장 정계장터 야외무대(김제시 교동 24-4)에서 성산지구 정계장터 활성화 프로그램 '풍년기원 김제단오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산마을조합이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했다.

이번 '풍년기원 김제단오제' 행사는 갈매이, 전통연희, 정계 들노래 등의 공연무대와 단오와 관련된 찜포물머리 감기, 단오선 그리기, 단오장(찜포비너) 꽃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단오와 관련된 수리취떡, 영동화채, 제호탕 등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떡메치기 체험(시식)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비봉면 전투사격장

완주군, 민원 해결 앞장

완주군이 비봉면 전투사격훈련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군의 유기적 관계 구축에 나섰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비봉면 현암마을 인근에는 전투사격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비봉면 백도리 전투사격훈련장은 1988년 7월 설치된 이후 관련 사단 내 예하 16개 부대가 매일 15~20여일 사격훈련을 하고 있으며, 오전·오후 및 야간에 사격을 하고 있어 소음의 가혹 불임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암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2년 군부대에 사격훈련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 군부대 측은 사격훈련장 방음벽 설치 등의 시설설치와 안전대책 강구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이 민원을 다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주군은 최근 관련 군부대와 면담을 진행하고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충분한 설명 및 협의 △완주군과 비봉면을 통한 민원 해결 등의 의견을 주문했다. 현재 군부대 측은 사격훈련장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추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

역전·부용 짜장면 봉사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인)가 지난 27일 역전마을과 부용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짜장면 데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짜장면데이는 역전마을과 부용마을 경로당에서 7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모아 손수 준비한 짜장면을 대접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집으로 정성 가득한 짜장면을 배달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읍면 주민 학습 접근성 높인다

김제시, 전국 유일 '달리는 모두배움터 체험형 학습버스' 7월까지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학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한 '체험형 학습버스'를 활용한 '2025 김제시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 제약으로 평생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운영하는 '달리는 모두배움터'는 대형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동형 학습공간으로, 다양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난 해부터 (주)선한나무와 시가 함께 평생학습 시설인프라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습버스는 관내 15개 읍면을 순환하며 총 50회차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운영은 강사은행제에 등록되어 지역 내 활동중인 평생교육강사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이 선호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지역인재 활용과 함께 보다 친근하고 실용적인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810명의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은 김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교육부의 2025년



김제시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학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한 '체험형 학습버스'를 활용한 '2025 김제시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운영한다. (사진=김제시청 제공)

교육부 평생학습진흥중흥지구사업으로도 선정되어 하반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30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은 "그동안 읍면 지역 주민들은 시내까지 나와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평생교육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한 학습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학습버스를 활용한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은 시민 모두가 고른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 환경적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습격차해소에 딱 맞는 학습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학습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다담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전투표, 안전하고 차질없이" | 유희태 완주군수, 현장 점검 나서

유희태 완주군수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28일 오전 9시부터 관내 사전투표소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유 군수는 이서면, 삼례, 봉동 등 주요 사전투표소를 차례로 찾았다. 각 투표소의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일정에 맞춰 진행된 준비 상황을 세심히 살펴보고,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상태를 확인했다.

유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무엇보다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선거사무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사전투표가 군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 속에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길 바라며, 완주군에서도 마



유희태 완주군수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28일 오전 9시부터 관내 사전투표소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지막까지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앞으로도 투표소 방역, 안내,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선거 당일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야간 산책에도 전기 좋은 안전길 조성

김제시, 백산저수지 일원에 가로등 설치 마무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8일 시민들이 야간에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백산저수지 일원에 범죄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가로등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안심산책로 조성 범죄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설치된 주요 시설로는 △가로등 47본, △보행등 26본,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0본, △비상벨

2기, △CCTV 4기가 있으며, 전 구간에 고효율 LED 조명을 적용해 야간 보행 안전성과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했다. 해당 산책로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도 부족으로 인한 야간 보행 불편과 범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구간을 범죄취약지역 개선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교육훈련생 취업 연계

김제여성새일센터, 일자리 협력망 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여성새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인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교육훈련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한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일자리협력망 회의는 지역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 방안과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케이마린 대표, 오성푸드 대표, 제이케이퍼

니처 부사장, 정보종합학원장 등 기업과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직업교육훈련은 경력 단절과 미취업 여성 18명을 선발해 매일 4시간씩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ITQ 한글·엑셀·파워포인트, 전산회계 2급 자격증 과정과 ERP 인사관리 과정을 통해 직무 역량을 쌓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산 천주교 공동체 역사 재조명

완주군, '고산 교우촌이 한국 천주교회 미친 영향' 주제 세미나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천주교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추진 등 확인 등 천주교 역사로 주목받고 있는 완주군에서 고산지역 천주교 공동체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고산 교우촌이 한국 천주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주가톨릭교현양원이 주최·주관하고, 완주군과 고산천주교회, 호남교회사연구소가 후원한다.

조선 후기 진산사건을 피해 고산현으로 들어온 윤지현은 1801년 신유박해 대표 순교자로 2021년 3월 남계리에서 발굴된 한국 최초 순교자 윤지충(형)과 권상연(사촌)과 함께 발굴됐다.

전주가톨릭교현양원 연구위원인 김두현 박사가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와 저구리 공동체'의 활동 배경과 주요 생활상을 소개하고, 약학박사 최진성 박사는 한국천주교 역사에서 '고산 지역의 장소성과 신자들의 생활상'을 이야기한다.

전병구 박사는 정국의 수많은 천주교 신앙인들이 모인 '고산 교우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강석진 신부는 흑흑한 박해시기에 굳건한 믿음으로 천주교 공동체를 확산시킨 '고산 지역 선교사와 교우들의 삶'의 신앙을 소개한 편지와 기록물 자료에 의한 당시의 활동 상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인 이태영 교수는 발표와 지정 토론자인 이영춘(호남교회사연구소장), 변주승(전주대학교수), 장기재(완주군 학예연구사), 서종태(해미국제성지연구원) 박사와 함께 고산지역 신앙 공동체의 역사적 가치와 한국 천주교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완주군은 초남이성지 순교자 유희태 확인 등 '호남의 사도 복자 유랑'을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의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천주교 역사문화의 중요한 현장으로 고산 지역 교우촌의 가치와 의미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세미나가 지역 신앙 공동체의 역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27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학부모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완주군의회 제공)

완주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학부모들과 간담회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27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학부모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교육의 중요한 주제인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완주군학부모협의회 소속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지역 내 교육·돌봄·복지·문화 환경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생생

하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의 잠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예술 프로그램 운영 △비형식 교육 대상 청소년에 대한 포용적 참여 기회 보장 △청소년 전용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진로 설계 및 교육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시설명회 등 다각적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완주군이 추진 중인 교육·돌봄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으며, 김 부의장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꽃과 정원의 도시' 한걸음씩 실현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앞(빛물정원) 안락한 휴식정원 조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정원형 화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청 민원실 앞 공간을 계절별 꽃과 향기가 어우러진 '꽃내음 화단'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시청 민원실 앞 공간은 지난 2017년 환경과에서 비점오염 저감과 빗물 재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한 빛물정원으로, 조성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수종의 노화 등으로 경관성이 저하된 상태였다.

시는 빛물정원의 생태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김제시의 품격을 담은 정원형 경관으로 재정의했으며, 계절마다 꽃이 피고 향기를 풍은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꽃내음 화단'에는 수크림 리틀버니, 감동사초, 에메랄드부쉬, 가우라, 라이라이트 수국, 부처꽃 등 다양한 그라스류와 관목이 어우러져 풍성한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마디초와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을 함께 식재해



생태적 다양성도 확보했다. 시는 앞서, 시청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도심 중심 거리의 중앙분리대에 정원형 화단을 조성한 데 이어, 향교 인근 성산화전교차로, 교통사거리, 용동오거리, 백산면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중앙병원사거리, 덕안고등학교 앞 교통신 등 주요 교통거점에도 특색 있는 녹지공간을 연이어 조성하며 도시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